“만유일체 정신으로 더불어 살아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무량한 복덕을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지난해의 누란지위(累卵之危)를 지혜로써 극복하고, 자비로 회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지구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 배고픔의 고통으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부처님은 오탁악세(五濁惡世)로 정의하였습니다. 오탁악세란 다섯 가지가 오염되어 타락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현대는 시대가 불안한 틈을 타 유사한 정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은 윤리도덕를 지키기 보다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사고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대비(大悲)의 본원(本願)으로 오탁악세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선량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인간세상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유일체(萬有一體)의 정신으로 인재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지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국민 평안 위해 선명상 대중화 선도”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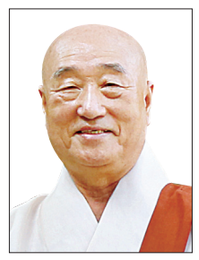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지난해는 참으로 값진 한해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중앙신도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많은 성원과 축하 속에 새 인연을 맺으며 전국의 신도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중앙신도회 창립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의 신도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또한 신도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키우고 흩어진 역량을 결집해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신 신도회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성과는 적극 계승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울 수 있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불어 불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평안한 삶에 이를 수 있도록 선명상 대중화를 선도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 불교문화 콘텐츠 발굴 등 탈종교화시대에서 불교의 핵심가치를 전달하며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서로 성장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 되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은 지혜와 풍요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뱀은 지혜롭고 학식이 뛰어난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을사년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장, 그리고 지혜로운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각자가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시다.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항상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학생 불자 양성으로 ‘전법’ 실천”

윤재웅 동국대 총장



동국가족과 불자 여러분, 2025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길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동국대는 지난 한해를 매우 뜻깊게 보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TOP 10에 이름을 올렸으며, 대학혁신사업 2차년도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불교계와 동문의 관심과 성원으로 200억원 이상을 모금하며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동국대는 2025년 내실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학 고유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공계 중점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불자 양성으로 ‘전법’을 실천하겠습니다. 2024년에 출범한 동국대 4300명 규모의 불교학생연합은 동국의 미래입니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종립대학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각층서 명상포교 활동 실천”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불기2569년을 맞아 전국의 5000여 포교사와 불자님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포교사 1기 배출로부터 43년, 포교사단 창단으로는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교사단은 종교편향과 전통사찰 내에서 관광문화해설사의 불교문화 왜곡해설 현상 등을 바로잡고자 포교사를 대상으로 불교문화해설사 자격제도를 불기256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00명 불교문화해설사 인력을 양성했고, 금년에는 400명이 예정돼있습니다. 금년 배출되는 불교문화해설사들의 온전한 불교문화해설 활동력으로 시민들에게 한국문화유산이 바르게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행복증진를 위한 계층 포교활동과 종단의 선명상 종책에 대응하기 위해 포교사를 주체로 한 명상상담사 양성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는 많은 명상상담사를 양성해 사회 각 계층현장에서 명상포교 활동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법이 시민들 가슴마다 꽃으로 만개하길 기원합니다.

“화쟁사상 실천으로 화합·상생 이끌겠다”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며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불교리더스포럼은 6기 출범을 시작으로 각 분야별 활동과 함께 종단 종책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종단의 외호기구로서 진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유사 이래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화쟁(和諍)사상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진리를 알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불기2569년에는 우리 불자들도 그 어느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한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한해”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을사년 새해 아침,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난 갑진년 한해는 전국여성불자회 회원들에게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신년하례음악회를 시작으로 뭇생명의 평화를 기원하는 쓰담순례를 화엄사, 봉선사, 수덕사에서 진행했으며, 5회에 걸친 푼다리카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회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 국제선명상 대회 참여를 통해 조계종도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는 전국여성불자회 2기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초대 임원진들과 함께 더 많은 분이 함께 가실 수 있는 넓은 울타리를 만들어 한발 더 나아가는 전국여성불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처님 씨앗을 싹틔울 수 있는 상서로운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행복 위해 정진”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온 세상 두루 밝게 비추는 을사년(乙巳年)의 태양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꿈과 희망의 문을 열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공불련은 지난해 기관별 조직을 재건하고 수계법회 및 해외 성지순례를 재개하였으며, 오송의료행정타운, 대전청사 및 과천청사에도 공무원불자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불련은 올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조직을 재건하여 명실상부한 신행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 속에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대자비를 실천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보살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불자님들이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년들이 품는 희망은 세상 밝히는 힘”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희망과 설렘 속에 새해의 아침을 맞이하며, 현대불교신문의 소중한 독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더욱 힘차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염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은 모든 생명체의 등불’이라는 가르침처럼, 우리 청년들이 품은 희망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입니다. 현대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불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희망의 씨앗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려갑시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덕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